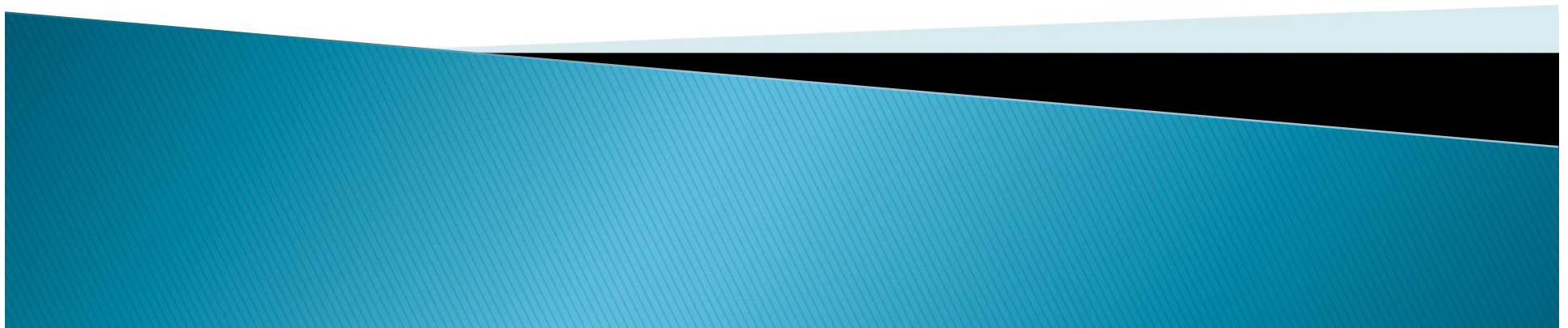


베어드와 숭실대학



들어가는 말:조선에서의 교육활동

- ▶ 1. 서울지역
 - ▶ 배재학당: 아펜젤러가 1885년 11월 고종황제로부터 학교설립허가 받음. 한국근대교육의 효시.
 - ▶ 경신학당: 언더우드가 1886년 5월 고아원형태의 교육사업인 예수교학당 시작.
- ▶ 2. 평양지역
 - ▶ 숭실학당: 1897년 베어드가 북장로교선교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 설립
 - ▶ 이 두지역 가운데 서울지역의 교육기관에 대한 연구는 그동안 활발하였음.



평양숭실대학 이전의 베어드: 1) 베어드의 초기 교육: 서당과 예수교학당

- ▶ 1891년 2월 2일 서울도착 후 남한산성에서 교육
 - ▶ 1891년 9월 9일 부산선교지부건립위해 부산행
 - ▶ 1895년 부산에서 베어드의 사랑방에서 서당교육
 - ▶ 이때 커리큘럼은 한문교육중심
-
- ▶ 1896년 1월 내륙지방인 대구에 선교지부 설립
 - ▶ 아담스부인의 동생인 제임스 아담스와 동역
 - ▶ 1896년 10월 선교부의 교육고문으로 서울행
 - ▶ 예수교 학당에서 교육하였으나 실패



2) 베어드와 선교부의 교육정책

- ▶ 1897년 8월 선교본부의 총무 스피어가 참석한 가운데 베어드가 입안한 <우리의 교육정책>(Our Educatial Policy)라는 논문을 심의확정.
- ▶ “제 3항 미션스쿨의 주된 목적은 그들 국민에게 적극적인 선교활동을 위해 토착교회(native church)의 육성과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일이다.”
- ▶ 이 항은 베어드가 추가한 것으로 “네비우스 선교방법론’을 교육방면에 적요시킨 것이다.



<우리의 교육정책>에 대한 부연설명

- ▶ “그들이 농부가 되든, 대장장이가 되든, 의사나 교사 혹은 정부의 관료가 되든 모두가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될 것이다.”
- ▶ 이 부분은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 그 지도자로서 활동할 때 어느 분야에서건 확고한 신념과 열정을 지녀야 함을 말함.
- ▶ 이 교육정책이 의도한 교육제도는 교회와 함께 성장하였다.



3. 베어드와 평양 숭실대학: 1) 베어드와 사랑방 학급

- ▶ 1886년 베어드는 교육고문으로 임명받고, 1897년 그의 교육정책을 실행할 평양으로 파송됨
- ▶ 평양주변의 늘어나는 초등학교 졸업생과 교회 수의 증가는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공급할 중등교육을 절실히 요구.
- ▶ 1897년 10월 초 사랑방 학급으로 불리는 중등교육반 탄생. 1898년 가을학기 학생모집 60명중 18명 선발. 교과목은 성서, 지리, 산수, 역사, 60여권의 서적 구입
- ▶ 초기단계부터 확고한 교육이념과 방법론으로 교육



2) 베어드와 송실학당

- ▶ 베어드의 사랑방학급은 평양학당으로 불리다 1901년 가서야 송실학당으로 명명.
- ▶ 한학자 박자중이 실사구시를 표장하는 실학의 숭상이라는 의미로 작명하였으나 베어드는 ‘진리의 숭상, 진실의 숭상’의 의미로 해석.
- ▶ 18명으로 시작한 학당은 1902년 72명, 1904년 102명이 되었고 1906년 367명이 됨.
- ▶ 1900년 가을학기부터 수업 년한은 5년제로 함. 평균연령은 20세 전후, 평안도, 함경도, 황해도전라도에서 전국적으로 학생들이 입학.



2) 베어드와 숭실학당

- ▶ 1899년 선교부가 700원, 1901년 스왈렌이 유산 1800원을 기부하여 신양리 39번지에 일곱개의 교실로 교사건립
- ▶ 1900년 전후 교과서의 번역과 제작추진.
- ▶ 교육언어를 한국어로 지정, 베어드 부인은 동물학, 식물학, 생물 등 과학교재 출판
- ▶ 미국 파크대학과 포이넷 아카데미를 학교경영모델로 하여 학생자조부를 운영
- ▶ 이는 일종의 근로학생부로 학교 내에 공장 (숭실기계창)을 운영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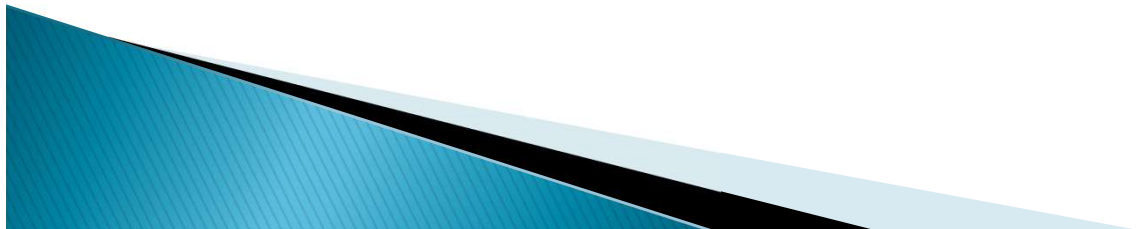
베어드와 합성숭실대학

- ▶ 19세기말 대각성운동과 선교운동의 일환으로 에큐메니칼운동이 일어남.
- ▶ 에큐메니칼 운동은 교회일치운동으로 한국내에서도 장로교와 감리교의 교회연합과 일치운동이 일어남
- ▶ 1906년 숭실학당은 감리교와 연합으로 숭실대학(The union christian college)으로 출범.
- ▶ 1906년 학생수가 225명으로 증가
- ▶ 교사의 증축필요성으로 감리교회가 2,500달러를 기부하고 평양주민들이 6,000원을 모금하여 과학관(격물학당)을 건립



베어드와 합성숭실대학

- ▶ 숭실대학의 수업연한은 4년제로 1905년 처음 교육을 실시하여 1906년 선교부의 인가를 받았고, 1908년 대학제국의 인가를 받았으며 그 해에 2명의 학생을 배출하였다(김두화, 김인준)
- ▶ 초기의 교과목은 성서, 수학, 물리학, 자연과학, 역사학, 인문학, 어학(영어), 변증학, 음악 등이었다.
- ▶ 그 후 1913년 경제학, 경제사, 사회학, 민법 개설
- ▶ 감리교의 교수진을 지원(베커와 빌링스) 그외에 북장로교의 베어드 부부, 맥쿰, 모오리, 맥머트리, 한국인교수 6명이 교수



4) 베어드와대학문제

- ▶ 1912년 ‘조선에 하나의 연합대학’이라는 구상이 나오고 그 설치장소가 평양이냐 서울이냐로 대 논쟁이 일어남: 이것이 대학문제이다.
- ▶ 이 논쟁은 감리교에서 1912년 3월 제기되어 그 장소를 서울로 하기로 결의하고 숭실대학 운영에서 탈퇴, 이는 숭실대학의 폐교를 의미.
- ▶ 북장로교, 남장로교, 호주장로교는 극력 반대.
- ▶ 서울의 언더우드는 감리교와 더불어 이를 지지
- ▶ 1912-1915년까지 지리한 논쟁 끝에 평양 숭실대학은 존치하고 서울에 대학을 세우는 것으로 결론



대학문제의 결과

- ▶ 1916년 3월 31일 베어드는 숭실대학 교장 사임
 - ▶ 이후 1931년까지 문서선교에 종사:신학지남 편집장, 성서출판, 주일학교 교재 및 성서번역 사업
 - ▶ 1931년 11월 28일 임종, 마펏이 장례위원장
 - ▶ 마펏과 언더우드는 본국에서 임종을 맞았으나 베어드는 조선의 흙이 됨.
-
- ▶ 대학문제의 후유증으로 언더우드는 1916년 사망



4. 베어드의 신학과 교육 사상이 숭실에 미친 영향: 1) 복음전도 운동


베어드는 무디의 신앙부흥운동을 받아 선교운동에 투신, 당시 무디는 학생자원운동에 큰 영향을 미침

베어드가 졸업한 맥코믹 신학대학은 종교개혁적 복음주의 전통과 영국 청교도의 신앙유산을 실천.

음주, 금연, 철저한 안식일 준수, 조상숭배, 축첩, 도박금지 등 엄격한 신앙적, 윤리적 기준을 요구



베어드의 보수적 복음주의 신앙의 영향

- ▶ 우리의 교육정책과 숭실대학에 그대로 반영됨
 - ▶ 숭실중학과 숭실대학 졸업생들이 평신도지도자로 혹은 복음전도 운동가로 헌신함.
 - ▶ 1907년 제주도에 이기풍 선교사를 파송한 후 1909년 기독교학생회가 김형재를 파송.
 - ▶ 1907년 평양대부흥운동의 장소제공
 - ▶ 1909-1911년 백만인 구령운동 전개.
 - ▶ 1910년 손정도를 중국 1911년 박영일 일본 파송
 - ▶ 1920년 전국에 음악전도대를 파송
 - ▶ 다수의 교계지도자 배출: 박형룡, 한경직, 배민수, 김양선, 김성락, 박윤선, 박종순, 현재 1천명정도
- 

베어드와 민족운동

- ▶ 베어드의 교육사상인 “토착적 기독교교육”, 즉 조선어로 하는 교육은 1905년 을사조약 후 민족의식과 국가의 자주 독립사상을 고취시켜 송실은 민족운동의 본거지가 됨.
- ▶ 1910년 105인 사건(총독 데라우치 암살미수사건): 신민회 와해를 위한 일제의 날조된 사건으로 베어드, 맥쿤 등 다수의 선교사와 송실 졸업생들이 연루됨, 총 21명.
- ▶ 조선국민회 사건: 1910년이후 3.1운동전까지 송실학교의 재학생과 기독교청년으로 구성된 비밀결사 조직.(장인환, 배민수, 김형직, 안세환, 김인준 등)



베어드와 민족운동

- ▶ 1919년 3.1운동: 송실중학출신의 선우혁이 상해에서 와 서북지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3.1운동을 준비시킴.
- ▶ 송실중학 졸업생 박희도와 송실대학 졸업생 김창준은 민족대표 33인에 포함.
- ▶ 송실대학 교장 마펫과 선교사들은 시위주동자들을 보호해줌.
- ▶ 1929년 광주학생의거를 이은 평양학생만세시위고 송실전문학생들이 주도.
- ▶ 1928년 농과강습소를 설치하여 농촌계몽운동(조만식, 배민수, 정인과, 맥쿤)



베어드와 송실의 연합운동

- ▶ 1900년 안식년을 맞아 뉴욕에서 열린 에큐메니칼 대회에 참석.
- ▶ 1906년 6월 북감리교 선교부 총회시 교육사업을 연합할 것을 촉구
- ▶ 그 결과 1906년 합성송실대학 설립
- ▶ 서울 송실대학의 <기독교문화연구소>, <기독교 사회연구소>, <기독교학대학원>, <기독교학과> 탄생.
- ▶ 이들은 모두 초교파 교육과 연구기관으로 베어드의 연합정신의 산물



베어드와 과학기술교육

- ▶ 베어드의 가문은 스코틀랜드에서 방직업 종사
- ▶ 이 실용주의적 사고가 숭실 교육에 적용
- ▶ 학생자조부를 설치하여, 1900년 인쇄소를 설립
- ▶ 1902년 미국 상인 데이비스에게서 5000불을 지원받아 공장(숭실기계창) 건립, 이는 최초의 산학협력기관으로 1938년 폐교식까지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을 줌
- ▶ 베어드는 과학기술을 중시해 1907년 과학관을 설립하고 공학과를 설치하고자 함.
- ▶ 그러나 이는 서울숭실에서 결실, 1969년 전산과 설치. 현재 형남 공학관 건립





